

공 될 즈음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며 이제는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정토마을에 들어온지 꼭 10년만이었죠.”

성오 스님의 바깥에는 정토마을 사람들과 풍경 사진이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능행 스님이 사준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왼손으로 찍어낸 사진이었다. 능행 스님은 성오 스님 얘기를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간 병원 짓기에 바빠서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는 능행 스님은 개원을 앞두고 성오 스님 생각이 너무나 난다고 했다.

도망가려 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

스님은 불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출가를 결심했다. 법정 스님과 같이 고요하고 청정한 삶을 발원했던 스님이 이렇게 호스피스 활동에 뛰어든 것은 죽음 앞에 너무나 처절해지는 인간의 고통을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1988년부터 불교봉사단체 자비회를 설립해 소외이웃을 돌보았던 스님은 1992년 말기암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 의문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죽음이 궁금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돌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들짐승처럼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처님께서 분명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모두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왜 저렇게 죽어 갈까? 이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죽음이 이렇게 소외되고 비참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들을 잘 보내드리고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면서 스님은 수행만 하다가 토굴에서 외롭게 병들어가는 수좌 스님들의 죽음, 이웃 종교 시설에서 생을 마무리 해야 하는 안타까움 등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면서 불교인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떠나 갔다. 여기에 온몸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공익을 위한 삶을 살라는 은사 수환 스님(조치원 학림사 주지)의 간곡한 당부에 힘입어 정토마을을 설립을 추진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안하고 대만으로 갈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겁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기로 한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즈음 어느날 화성 자재점사 묘희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1억원이 든 가방을 안겨 주셨죠. 이 일은 꼭 제가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저를 차에 태워 정토마을을 부지에 내려놓고 가셨어요.”

스님은 그 돈으로 수도와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두 평짜리 콘테이너 박스 한 동을 사서 기도 하면서 정토마을 봉사를 시작해 2000년 정토마을을 설립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매일 죽어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여기에 시설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3천 만원 정도 필요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식구들은 제가 탁발을 나갔다 생각했지 아무도 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이지요.(웃음)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서있는 곳이 정토마을이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죠.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기꺼이 이 생을 여기에 던지겠다고.”

능행 스님과 같이 청정한 수행하는 삶을 동경했던 능행 스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다시는 다른 삶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



능행 스님은 ... 1994년 조치원 학림사 수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조계종 자원봉사단 총복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독립형 호스피스센터 정토마을을 원장, 동국대 총동문회 이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한국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협회 교육이사, 마하보디임상전문교육원 원장,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제)대한불교진흥원 제3회 대원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제24회 불이성 실천보야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섬세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임상전문서적 <불교 임상기도집>, 산문집 <이 순간> 등이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다. “그분의 삶을 동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번도 법정 스님을 뵈는 적이 없어요. 법정 스님 입적 이후에 삼재 때 김상사를 찾았던 것이 전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지금 제 삶은 법정 스님의 맑은 삶을 또 다른 길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예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보다 미리 죽음에 대처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교방송TV “지금 이 순간”의 진행자이기도 한 스님은 “죽음을 삶과 삶을 있게 해주지만 우리는 죽음의 역할을 너무 모르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 이를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미

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현대불교의 지면을 빌려 지금까지 함께 동참해준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일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건축에 문외한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인을 위한 병원을 지어 달라는 그 바람을 제가 함께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큰스님을 비롯해 불자들에게 현대불교의 지면을 통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전법일기

가장 가슴 벅찬 말 ‘아빠스님’

대문사에도 봄이 찾아왔다. 봄은 숨찬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이 나른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잠깐 일어나라,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지, 학교 가기 싫다 하는 입씨름 소리가 내 귓가로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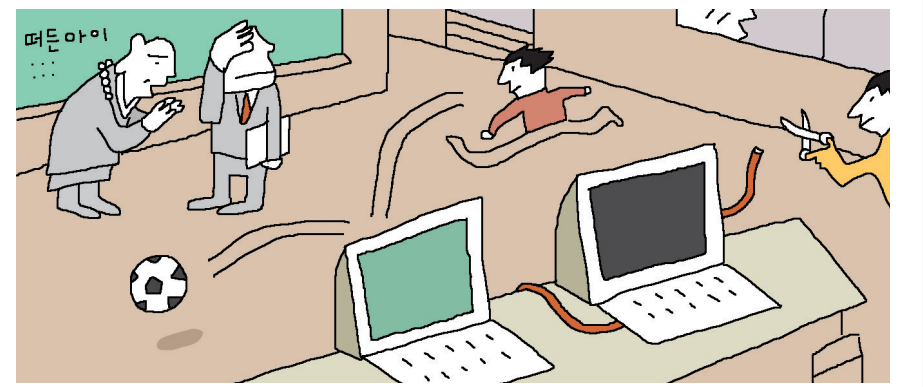
“어여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안해!” 부스스 까치 같은 머리 꼴을 하고 마지 못해 일어나는 세 명의 남자 아이들, 아침부터 한숨이 새어나왔다. 남자 아이들 셋이 모여 있다 보니 두 곱절의 힘이 들었다. 특히 말쑥꾸러기 두 녀석은 내 속을 무뎠히도 섞었다.

나는 한동안 진호, 진수, 오복이 이렇게 세 아이의 보호자인 ‘아빠 스님’으로 통했다. 진호와 진수는 형제지간인데 두 녀석은 무뎠히도 내 속을 섞었다. 미운 일곱

엄마 혼자 키우기 어려운 제게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귀를 막아 버린 것처럼 대꾸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나중에야 진수가 엄마와 떨어져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가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어찌면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처음 절에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하면 아이들도 잘 따라 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 기준에서 잘하는 것과 아이들 기준에서 잘하는 것은 달랐다. 이 차이를 인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속앓이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잔소리가 늘었다.



그림·박구원

살이라고 하던데 이 녀석들은 그보다 더 힘든 미운 사춘기를 나고 있었다.

“진수 아버지 되십니까?” 하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진수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다녀가셔서 학부모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걸려 온 전화에 마음이 복잡했다. 처음으로 학부모 입장이 되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불러가는 날이었다. 나를 마주한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꺼내었다.

“스님, 애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수 녀석이 제법 큰 잘못을 저질렀다. 컴퓨터실에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가위로 컴퓨터 10대의 자판 선을 다 잘라 버린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간신히 여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또 옮겨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했다. “가장 폭력적으로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살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사는 일이 그 보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인공이다. 참을 인공자를 가지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런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절에서 몇 차례 아이들을 맡아 키운 이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스님 아빠’ 보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한 부모 가정이라도 엄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이 작은 실패를 통해 나는 아빠 되기의 어려움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아빠 스님’이라고 불렀을 때의 환희를 알게 되었다.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아빠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간 녀석들아, 언제가 스님에게 연락 한번 다오. 보고 싶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문사 주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명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후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홍국농산 유향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보리밥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편질을 유향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향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 (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지리산지력의 헛개줄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함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